

아·태 마스터스 성공 다짐 '한마음'

도내 14개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 한자리에
대회 성공 위해 종목별 경기장 배정 등 논의
내달 전국 16개 시·도 체육회와 순회 간담회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3일 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회성공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대회유치 추진경과 ▲대회이념과 정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배경 설명 ▲대회 참가자 등록비 납부 ▲대회 운영 부담금 시·군 소통 ▲도내 종목별 쿼터제 모집 ▲시·군 종목별 경기장 배정 ▲대회 홍보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무국장들은 "도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성공개회를 위해 각 지역 내 체육과 문화, 그리고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강오 사무총장은 "지역의 특성과 인프라를 접목한 짜임새 있는 지역축제 분위기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전국 16개 시·도 체육회와 중앙종목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순회 간담회를 통해 대회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별 국내선수 모집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23일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체육진흥공단, 올해도 비대면 체력증진교실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해도 비대면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국민체력100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은 부상 예방을 위한 준비운동부터 부위별 순환 운동 및 정리운동까지 국민체력100 건강운동관리사가 직접 기획한 전문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했다.
전국 체력인증센터를 통해 총 1만5419명이

참여했고, 참여자 만족도 90% 이상을 달성하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며 올해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체육진흥공단은 "3월부터 체육활동 취약 계층인 근로자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기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 지사와 협업하여 4월 14일까지 6주간 주 2회 요양시설 및 주간 보호센터 근로자 190명 대상 근골격계 및 대사질환 예방 운동교실이 진행

한다고"고 설명했다.
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체력관리에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기 힘든 체육활동 취약계층 대상으로 비대면 운동 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국민 대상 셀프 체력 측정 프로그램 및 화상을 통한 운동 처방 등 비대면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체력100의 운동 콘텐츠는 국민체력100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뉴시스



최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33회 한국중고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들. (사진=전북체육회 제공)

전북 펜싱 꿈나무, 전국대회 두각

전국남녀중고선수권... 이리여고, 에페 단체전 1위
익산지원중, 여중 사브르 단체전 2위 등 성적 '우수'

전북 펜싱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3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양구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33회 한국중고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에서 전북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리여고 펜싱부는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합납고를 45대 36으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익산지원중은 여중 사브르 단체전에서 구운중을 만나 아쉽게 패하며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개인전에 나선 김민경(이리여고)과 유승범(황등성일고), 서지수(익산지원중)는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고, 이리여고는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전북펜싱협회 윤길우 회장은 "꿈나무 육성과 우수 선수 발굴에 적극 나서, 전북 펜싱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내달부터 운영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장용갑)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최·주관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업과 연계한 '태권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4월부터 운영한다.
'태권도 진로체험'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강의와 체험 등 태권도를 통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태권도진흥재단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교육부에서 인증을 받았다.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과 '진로체험버스', '태권도원 진로체험'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초·중·고등학생 및 태권도학과 재학생 등에게 지도자가 직접 찾아가는 '강사 지원형'과 학생들이 태권도원으로 찾아와서 진로체험을 하는 '방문형'으로 구분되어 11월 말까지 이루어진다.
'태권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항은 태권도원 누리집 프로그램 카테고리 (https://www.tkf.or.kr/t1/contents/tkfprogram_future.do) 또는 진로체험망 꿈길(<https://www.gocoomgill.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은 진로체험망 꿈길에서 할 수 있다. 단, '태권도원 진로체험 II' 프로그램은 태권도진흥재단 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태권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태권도진흥재단 교육부(063-320-056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운영 방법과 시기 등은 신청 및 선정된 단체, 학교 등과 협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